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금융위원장 기조연설

핀테크와 금융의 변화

2019. 5. 23.

금 융 위 원 장
최 종 구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대한민국 핀테크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글로벌 핀테크 시장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뜻 깊은 자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더글라스 페이건(Douglas Feagin) 안트파이낸셜 국제부문 대표님,
매트 딜(Matt Dill) 비자 글로벌 대표님,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금융과 핀테크 산업을 이끌어주시는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님,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김대윤 회장님,
각 금융협회와 금융그룹, 그리고 핀테크 기업인 여러분,
박람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추진,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까지
핀테크 산업 육성과 금융혁신을 위해
쉽 없이 전력질주 해왔습니다.

오늘은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면서, 지금의 변화가
길고 긴 금융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핀테크가 금융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같이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II. 금융의 역사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는 인간은 “태생적으로 계산하는 동물”이라며, 금융의 발생을 인간 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주장을 증명하듯,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5,500년전 인류최초의 기록은 금융거래였으며, 금융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긴 전쟁이 식량비축과 물자보급을 위해 높은 이자를 받고 큰 위험을 감수해주는 ‘모험대차’(bottomry)*라는 금융업을 탄생시켰습니다.

* 해상무역 상인들이 대금업자로부터 차입하여 항해에 성공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실패할 경우 원금상환을 면제(대출과 보험의 결합 형태)

유럽국가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이 수표가 되었고, 주식회사가 만들어졌으며, 암스테르담에는 세계최초의 증권거래소도 설립(1609년)되었습니다.

또한, 런던 시내 건물의 대부분을 전소시킨 런던 대화재(1666년)를 계기로 화재보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금융은 단순히 경제의 한 영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경제, 기술·문화,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총망라한 집합체입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제로써 작동하면서, 금융 스스로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인류와 금융은 변증법적 발전을 지속해왔습니다.

III. 최근의 환경 변화와 핀테크

1. 최근의 환경 변화

우리는 지금 또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ICT,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이
경제의 **공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hyper-connectivity) 사회,
이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이터 주도 경제(data-driven economy)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과 IT, 다양한 산업간의 **경계가 모호**(Big blur)해지는
산업간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없이,
개방과 공유로 참여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platform-economy)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으며,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는
상거래의 기본을 **온라인 거래**(e-commerce)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의 재미있고, 편리하고, 빠르고, 저렴한 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금융·경제뿐 아니라, 모든 생활관련 서비스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앱, 하나의 플랫폼에 대한 수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내재적 한계**도 나타났습니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윤추구와
집중화된 금융의 위험성을 드러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초대형 금융회사(*"too-big-to-fail"*)들은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 기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확대·재생산하였습니다.

위기의 해결책으로 마련된 강한 규율체계는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약이나
고급 인력들의 실업 문제 등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융을 둘러싼 환경의 복합적인 변화,
그리고 스스로의 내재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시스템은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핀테크”의 등장입니다.

2. 핀테크의 등장과 의의 : 독점·폐쇄 → 경쟁·개방·민주적 금융

금융과 기술의 결합이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1472년 이탈리아 시에나의 벤치*에서 시작된
최초의 은행이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금융과 기술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 은행(bank)의 어원은 이탈리아어 “banco” : 벤치, 사무용 탁자를 의미
최초의 은행은 1472년 설립된 Banka Monte dei Paschi di Siena(BMPS)

전신·전보와 같은 아날로그 기술부터,
ATM, SWIFT 등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금융은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효율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금융과 기술의 결합은
주로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한 방향이었습니다.

지금의 핀테크 현상은 과거와는 다른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발달된 주요 핀테크 분야는
간편결제, P2P, 크라우드펀딩 등과 같은
대고객 접점이 크고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거나,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 또는
기존 금융인프라가 성숙하지 못한 지역에서의 대안금융입니다.

핀테크를 통한 금융의 변화는, 금융회사나
기존 금융을 이용하던 소수 고액자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의 독과점에 도전하여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금융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민주적인 금융으로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3. 새로운 규율체계에 대한 고민

한편, 핀테크의 발달로 금융의 탈집중화가 심화되고,
전통적 금융업간의 경계도 모호해지면서,
핀테크가 금융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관리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장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해
어느 시점*에서부터 규율이 시작되어야 할지,
국경을 넘어 금융의 영역으로 진입해오는 빅테크(BigTech)에게는
어떠한 규율방식이 적절할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 핀테크 기업들이 “too-small-to-care”에서 “too-big-to-fail”로 넘어가기 前단계

VI. 한국의 핀테크

1. 한국 핀테크의 잠재력

한국의 핀테크는 주요국에 비해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높은 기술 수준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영국 이코노미스트紙도 한국이 핀테크를 통해 “금융을 재미있게 만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핀테크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 “South Korea is trying to make banking fun.” (The Economist, '19.5.4)

한국의 높은 ICT 인프라 수준과 새로운 것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소비자 성향은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기에 매우 유리한 여건입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존 기술에 더해 최근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5G 기술이 금융과 결합하면 핀테크의 비상(飛上)을 위한 좋은 활주로가 될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관점에서도 한국의 디지털 수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94%(17년말 기준), 모바일뱅킹 등록·이용자 수는 약 9천만 명(중복포함)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20~30대 뿐 아니라 50대 이상 시니어 세대의 핀테크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규정 중심의 촘촘한 규율 체계,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기존 금융산업의 영업행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금융시장 등은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2.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세계경제와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의 대분기점을 대한민국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금융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① 핀테크 성장 지원]

우선,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시장 진입(entrance)부터, 성장(scale-up), 시장 확장(expansion)까지 단계적으로 성공해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금융과 통신의 융합, AI를 활용한 인슈테크의 고도화,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등 **新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시장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앱이나 QR코드를 활용한 결제, 간편 보험가입, 금융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 등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新서비스**의 테스트도 계속될 것입니다.

전향적 심사와 신속한 절차 운영으로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전세계 핀테크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핀테크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지원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모험자본과 연계한 **핀테크 투자**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② 핀테크 혁신 위한 규제체계 정비]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특례가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않고
아날로그 규제에서 디지털 규제로의
근본적인 규제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어
가볍고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 도입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③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 지원]

기존 금융회사들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은행·보험·증권 등 각 금융권역별
핀테크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핀테크 랩 등을 활용한
새로운 핀테크 기업 발굴·지원 및 연계 강화가 중요합니다.

정부도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경쟁적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투자, 영업 규제 등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핀테크와 금융그룹들이
글로벌 금융플랫폼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④ 핀테크 신시장 개척]

또한, 핀테크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계속하겠습니다.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결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통해 개방·경쟁적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금융인프라가 필요한 국가들에게 결제, 보안 및 신용정보 등 한국의 금융인프라를 접목하여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인 핀테크 로드를 개척하는 한편, 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으로의 해외진출도 적극 돕겠습니다.

[⑤ 혁신과 포용의 균형 전략]

마지막으로, 정부는 혁신과 포용의 균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 분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한 사회의 발전은 혁신에서 시작되지만,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비로소 사회전체의 번영으로 귀결된다고 합니다.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것임을 항상 유념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V. 맺음말씀

17세기 유럽의 한 작가(Jose de la Vega)는
금융의 본질을, 영원히 쉬지 못하고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포스(Sisyphus)의 운명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요인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문제와 금융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의
지난한 반복을 의미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핀테크는 단순한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구조적 변화가
금융에 미친 결과의 총체(總體)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으며,
그 흐름이 한 국가의 발전, 나아가 인류의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살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라 하겠습니다.

특히,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향한 경주에서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코리아 핀테크 위크 기간 동안
글로벌 핀테크와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청사진을 그려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